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조정희¹, 조옥희^{2*}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²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ung-Hee Cho¹, Ok-Hee Cho^{2*}

¹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beta=0.32, 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변인의 총 설명력은 20.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립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과 효과적인 진로정체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호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isolation, depression,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Data were collected on an online basi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36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dow 25.0 program.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career identity was confirmed by the resilience ($\beta=0.32, p=.001$)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found to be 20.5%.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strategy establish a positive career identity and develop an effective career identity promotion program by exerting individual resilience against to negative emotions such as isolation and depression.

Key Words :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Career Identity,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Ok-Hee Cho(ohcho@kongju.ac.kr)

Received July 1, 2021

Accepted September 20, 2021

Revised August 2, 2021

Published Septem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취업률은 2020년 기준 85.7%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1] 졸업 후 병원간호사 이외 보건교사, 산업장 간호사, 공무원 등 직종 선택의 기회와 진로가 매우 다양해졌다[2]. 2021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의료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여 고교생이 희망하는 직업 2위로 간호사가 선정되었고[3] 실제로 대학 내 간호학과는 인기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취업이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간호학과를 선호하는 학생 수가 많아졌으며 그 결과, 간호학과의 양적 증대로 인한 졸업생의 증가로 오히려 과거보다 취업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4]. 최근에는 인터넷 동영상 등 온라인 매체로부터 진로 정보를 얻는 학생들이 많아지며[3]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면밀한 탐색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대학 입학 후에는 전공 부적응을 겪고[5], 졸업 후에는 향후 간호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다[6]. 특히, 간호학과는 학과 특성상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과 취업방향이 이루어지고 졸업과 동시에 전공 분야인 간호사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하여 진로와 취업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적으며 이로 인하여 진로행동준비와 진로정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7].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건강한 자기 확신 정도를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및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8].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병원과 간호사로서의 부적응으로 이어져 높은 이직의도를 갖게 되어[9] 직장 조기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10]. 따라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대학생 시기에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며 진로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11].

한편, 대학은 코로나 19로 인해 캠퍼스 폐쇄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과 같은 전례 없던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대학이라는 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위기로 작용하였다[12]. Lee와 Ahn[13]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활동 제한으로 인한 무력감'과 '생활 질서의 무너짐'을 느끼고, 그 결과 고립감과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우려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나[14] 국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사회적 고립을 더욱 가속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우울과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다[15].

2021년 5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 114만 8천명 중 20대가 33만 8천명으로[16], 이는 전체 대비 약 3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일자리 부족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대학생들은 기존에 경험했던 취업스트레스에 더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무력감이 극대화되어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17].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15]의 연구에서는 고립의 정도가 강할수록 심리 정서가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 우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립의 정도가 강할수록 진로구직의 취약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고립감과 우울 정도를 확인하여 이외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정체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낮추어 주고 긍정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환경에서 상황적인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는 문제 해결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인해 생기는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1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주었고[20],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확립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교과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였다[21].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적인 학위 과정에서 유발되는 전공만족도, 간호 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등[5,7,10]을 위주로 확인한 상관관계 연구가 많았고, 현재의 코로나 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현재는 일상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 집단면역을 목표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1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격리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사료되어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특성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와 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C시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의 모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22]을 이용해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 14개일 때 필요한 표본 크기는 135명이었다.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로 자료수집 기간 동안 응답한 간호대학생의 수는 총 137명으로 최소 필요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이 중 불완전한 응답을 한 1부를 제외하고 총 136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현 가정 경제 수준, 거주 형태, 지원동기, 입학 유형,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희망 직업, 주관적 건강 상태로서 총 11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2.3.2 고립감

고립감은 주관적, 객관적 사회적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해 Vincenzi와 Grabosky [23]가 개발한 사회적·정서적 고립척도(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 ESLI)를 Lee [2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사회적 고립감 8문항, 정서적 고립감 8문항, 사회적 외로움 7문항, 정서적 외로움 7문항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고립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우울

우울은 Kroenke, Spitzer와 Williams [25]가 개발한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Park 등 [26]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문항으로 지난 2주간 증상에 시달린 정도를 빈도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없음'=0점, '2~3일 이상'=1점, '일주일 이상'=2점, '거의 매일'=3점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점수를 합산하여 우울증 아님(1~4점), 가벼운 우울증(5~9점), 중간 정도 우울증(10~19점), 심한 우울증(20~27점)으로 분류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roenke 등[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고, Park 등[26]의 연구에서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4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 [27]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을 Baek 등[2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강인성 9문항, 인내력 8문항, 낙관성 4문항, 지지 2문항, 영성 2문항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onnor와 Davidson의 연구[27]에서 Cronbach's α .89이었고, Baek 등[28]의 연구에서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3.5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 [8]가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 (진로상황검사)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문항을 Kwon과 Kim [29]이 간호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과 Kim [29]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해당 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은 후 간호학과 게시판에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게시하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기반 설문조사로 설문에 관심을 표명하는 학생은 링크된 URL로 접속시 Google Form을 활용한 상세 연구설명문을 보고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온라인 동의서가 작성되면 구조화된 설문지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된 자료는 연구자의 Google 계정 데이터 서버에 자동 저장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 편차 등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승인(KNU_IRB_2021-43)을 받았다. 자료수집 전 연구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학과 게시판에 게시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자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링크된 URL 연결 시 첫 화면에 상세한 연구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온라인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 다음 화면부터 본 설문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14명(83.8%), 남성이 22명(16.2%)이었다. 평균 연령은 22.69 ± 2.8 세로, 학년은 1학년이 38명(27.9%), 2학년 39명(28.7%), 3학년 29명(21.3%), 4학년 30명(22.1%)이었다.

현 가정 경제 수준은 중간 정도가 91명(66.9%)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95명(69.9%), 기숙사 31명(22.7%), 자취하는 경우는 10명(7.4%)이었다. 지원동기로는 취업 목적인 경우가 60명(44.1%), 적성과 흥미 50명(36.8%), 주변인의 권유 21명(15.4%), 성적 5명(3.7%)순이었고, 입학유형은 수시인 경우가 101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학업성취도는 중간 정도가 91명(66.9%)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62명(45.6%), 보통 48명(35.3%), 매우 만족 15명(11.0%), 불만족 11명(8.1%)순이었다. 희망 직업으로는 임상간호사가 112명(82.4%)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11명(8.1%), 잘 모르겠음 8명(5.9%), 산업장 간호사 3명(2.2%), 학교 보건교사 2명(1.5%)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66명(48.5%), 좋음 46명(33.8%), 나쁘다고 답한 경우는 24명(17.6%)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전체 고립감은 4점 만점에 평균 1.49 ± 0.37 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사회적 고립감 평균 1.54 ± 0.41 점, 정서적 외로움 평균 1.51 ± 0.41 점, 사회적 외로움 평균 1.49 ± 0.41 점, 정서적 고립감 평균 1.43 ± 0.44 점 순이었다.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 0.49 ± 0.52 점이었으며 평가 도구 기준[26]에 따라 합당한 점수로 분류했을

Table 1. Differences between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areer identity		
			Mean±SD	χ^2 or t or F (p)	
Gender	Male	22 (16.2)	2.78±0.50	0.21 (.832)	
	Female	114 (83.8)	2.80±0.54		
Age(yrs)			22.69±2.87	0.47 (.629)	
	20~21	58 (42.6)	2.85±0.60		
	22~23	49 (36.0)	2.75±0.52		
	24~	29 (21.3)	2.78±0.42		
Grade	Freshman	38 (27.9)	2.97±0.56	2.69 (.049)	
	Sophomore	39 (28.7)	2.77±0.51		
	Junior	29 (21.3)	2.81±0.61		
	Senior	30 (22.1)	2.61±0.38		
Current home economic level	High	20 (14.7)	2.91±0.61	0.52 (.598)	
	Middle	91 (66.9)	2.79±0.52		
	Low	25 (18.4)	2.75±0.52		
Type of residence	Parents house	95 (69.9)	2.80±0.50	0.20 (.907)†	
	Dormitory	31 (22.7)	2.83±0.52		
	Rented room	10 (7.4)	2.71±0.86		
Application motivation	High school grades ^a	5 (3.7)	2.44±0.54	26.17 (<.001)†	
	Others recommend ^b	21 (15.4)	2.69±0.54		a,b,d<c
	Aptitude or interest ^c	50 (36.8)	3.08±0.52		
	Purpose of employment ^d	60 (44.1)	2.63±0.45		
Admission type	Rolling admission	101 (74.3)	2.83±0.55	3.45 (.178)†	
	Regular admission	27 (19.9)	2.64±0.51		
	Transfer admission	8 (5.8)	2.95±0.36		
Subjective acadenc performance	High ^a	15 (11.0)	3.10±0.53	4.77 (.010)	
	Middle ^b	91 (66.9)	2.82±0.52		a>c
	Low ^c	30 (22.1)	2.60±0.53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ied ^a	15 (11.0)	3.39±0.68	17.28 (<.001)	
	Satisfied ^b	62 (45.6)	2.90±0.43		a>b>c,d
	Moderate ^c	48 (35.3)	2.60±0.42		
	Unsatisfied ^d	11 (8.1)	2.27±0.40		
Desired occupation	Clinical nurse	112 (82.4)	2.87±0.53	14.88 (.005)†	
	Official	11 (8.1)	2.49±0.52		
	School health teacher	2 (1.5)	2.64±0.71		
	Occupational health nurse	3 (2.2)	2.38±0.22		
	Not determined	8 (5.9)	2.38±0.38		
Subject health status	Good	46 (33.8)	2.96±0.63	3.13 (.047)	
	Moderate	66 (48.5)	2.72±0.43		
	Bad	24 (17.6)	2.72±0.57		

†Kruskal-Wallis test

때 우울증 아님 89명(65.4%), 가벼운 우울증 30명(22.1%), 중간 정도 우울증 14명(10.3%), 심한 우울증 3명(2.2%)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56±0.65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지지영역이 평균 3.09±0.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내력 평균

2.71±0.68점, 낙관성 평균 2.61±0.82점, 강인성 평균 2.35±0.76점, 영성 평균 2.23점±0.90점 순이었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80±0.5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N=136)

Variables	Mean±SD or N(%)	Item	Range
Isolation	1.49±0.37	30	1~4
Social isolation	1.54±0.41	8	1~4
Emotional isolation	1.43±0.44	8	1~4
Social loneliness	1.49±0.41	7	1~4
Emotional loneliness	1.51±0.41	7	1~4
Depression	0.49±0.52	9	0~3
No depression	89 (65.4)		
Mild depression	30 (22.1)		
Moderate depression	14 (10.3)		
Severe depression	3 (2.2)		
Resilience	2.56±0.65	25	0~4
Hardiness	2.35±0.76	9	0~4
Persistence	2.71±0.68	8	0~4
Optimism	2.61±0.82	4	0~4
Support	3.09±0.81	2	0~4
Spiritual in nature	2.23±0.90	2	0~4
Career identity	2.80±0.54	14	1~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학년 ($F=2.69, p=.049$), 지원동기($\chi^2=26.17, p<.001$), 학업성취도($F=4.77, p=.010$), 전공만족도($F=17.28, p<.001$), 희망직업($\chi^2=14.88, p=.005$), 주관적 건강상태($F=3.13, p=.04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가 성적, 주변인의 권유, 취업 목적인 경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만족과 보통 또는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이 보통 또는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았다. 학년, 희망직업, 주관적 건강상태는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N=136)

Variables	Career identity				
	B	SE	B	t	p
(Constant)	2.40	0.32		7.54	<.001
Isolation	-0.14	0.14	-0.10	-0.96	.339
Depression	-0.13	0.10	-0.13	-1.31	.192
Resilience	0.26	0.07	0.32	3.50	.001

$R^2 = .205, \text{ Adjusted } R^2 = .187, F=11.36, p<.001$

3.4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진로정체감은 고립감($r=-.32, p<.001$), 우울($r=-.33,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회복탄력성($r=.42, p<.001$)과는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고립감은 우울($r=.59, p<.001$)과 정상관관계, 회복탄력성($r=-.46, p<.001$)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과 회복탄력성($r=-.45, p<.001$)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N=136)

Variables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r(p)	r(p)	r(p)
Depression	.59 (<.001)		
Resilience	-.46 (<.001)	-.45 (<.001)	
Career identity	-.32 (<.001)	-.33 (<.001)	.42 (<.001)

3.5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 분석을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Tolerance)가 0.606~0.740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351~1.650으로 기준치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의 값은 2.01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1.36, p<.001$),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beta=0.32, p=.001$)으로 확인되었으며 변인의 총 설명력은 20.5%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80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Kim과 Kim [30]의 2.85점과는 유사하고, Jo 등[5]의 2.54점보다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 [30], 임상실습 스트레스[10]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만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임상실습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어 전체 학년을 조사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이 높으면 간호직에 대한 안정된 진로 준비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갖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게 되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는다[6]. 그러므로 미래 예비간호사로서 이직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더 확고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지원동기,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가 주변인의 권유, 성적, 취업 목적인 경우보다 높게 나온 것은 여러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5,10,30]. 적성과 흥미로 인해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동기가 명확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높은 자기 확신을 갖는다[5]. 반면,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한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이 오히려 간호사에 대한 필요 인력이 증가하여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줄었으나 대중매체에서 반영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간호사의 고된 이미지, 강도 높은 활동, 감염 위험성 등이 진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 걱정, 자신감 상실 등으로 인해 진로정체감이 저하되었을 거라 사료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와 Jang [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취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진로선택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31]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주었을 거라 판단된다. 전공만족도는 보통 또는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만족 그리고

매우 만족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2].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뿐만 아니라 타 학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진로 및 취업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전공만족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코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후분석 결과,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4학년의 진로정체감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간호학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탐색 및 고찰의 기회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5]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겸한 이론수업, 국가고시 대비 등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로를 고찰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임상 실습으로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생긴 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다가올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현실을 부정하게 되며 이로써 진로정체감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졸업 후 임상간호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대중매체나 기타 매스컴에서 부각되는 의료현장 최전방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중 사회적 이미지는 학생들의 간호전문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진로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5].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Park 등[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건강상태의 긍정적인 인식이 진로정체감에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고립감, 우울과는 역상관계로, 회복탄력성과는 정상관계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고립감과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 간의 유의한 정상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34], 우울과 회복탄력성 간의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20], 회복탄력성과 진로정체감 간의 유의한 정상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21]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고립감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고 회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고립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이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20.5% 예측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21] 이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성공적인 경험은 진로과정의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극복해내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감 확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진로정체감은 향상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원 동기 유형, 학업 성취도 수준,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맞추어 진로정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고립감, 우울,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가장 주된 영향 요인은 회복탄력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0.5% 예측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전략과 이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수준별 진로정체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영향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확인한 고립감과 우울에 대한

결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면대면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결과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립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관한 연구의 축적이 요구되며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20). *The Status of Graduates by Fields of Study*. Jincheon : KESS.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0&menuSeq=3645&publSeq=58&menuCd=86321&itemCode=02&menuId=3_1_1&language=en
- [2] H. Y. Song & S. H. Shin. (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628-640. DOI : 10.5762/KAIS.2016.17.9.628
- [3] Ministry of Education. (2021). *2021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 Sejong : Ministry of Education. <https://www.moe.go.kr/sn3hcv/doc.html?fn=5377e11fe37f8b343454e2831fea37f9&rs=/upload/synap/202106/>
- [4]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et al.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22-131. DOI : 10.5807/kjohn.2015.24.2.122
- [5] E. J. Jo, J. H. Park & K. M. Lim. (2019).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29-337. DOI : 10.14400/JDC.2019.17.10.329
- [6]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7] J. A. Seong, S. Y. Bang & S. Y. Kim. (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olistic Health Science*, 2(2), 29-38.
- [8]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orporated*.
- [9] S. Y. Baek. (2019). The Effect of Nursing Working Environment and Career Barrier recognized by Graduate grade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7-47. DOI : 10.14400/JDC.2019.17.10.037

- [10] A. R. Lee & H. J. Jang. (2020).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6), 2427-2442. DOI : 10.37727/jkdas.2020.22.6.2427
- [11] A. Hirschi. (2011). Effects of Orientations to Happiness on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367-378. DOI : 10.1002/j.2161-0045.2011.tb00075.
- [12] C. A. Hamza, L. Ewing, N. L. Heath & A. L. Goldstein. (2021). When social isolation is nothing new: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COVID-19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and without preexisting mental health concerns. *Canadian Psychology / Psychologie canadienne*, 62(1), 20-30. DOI : 10.1037/cap0000255
- [13] C. K. Lee & J. H. Ahn. (2020).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2), 142-152. DOI : 10.5762/KAIS.2020.21.12.142
- [14]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 J. H. Kim. (2020).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2119-2156. DOI : 10.23844/kjcp.2020.11.32.4.2119
- [15] S. I. Lee, M. A. Oh, M. K. Kim & J. A. Jeon.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isolation of unemployed youth for discovering and supporting for isolated youth-Focused on participants in Seoul Youth Allowance*. Seoul : Seoul Youth Guarantee Center.
- [16] Kostat. (2021). 2021. 5. *Employment Trends*. Daejeon : Kostat.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fn=synapview390064_1&rs=/assist/synap/preview.
- [17] H. J. Shin. (2020. 11. 27). Why is the 'corona blue' of women and young people? ... "economic helplessness meets disaster and explodes". *News of hankookilbo*.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57849>
- [18] H. J. Park & N. H. Kim. (2020).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4(2), 21-29. DOI : 10.38083/JKNS.24.2.202008.021
- [19] H. R. Kim, H. J. Song, D. K. Hong, H. I. Kim, Y. J. Do, S. J. Jang et al. (2019). The influence of anger and resilience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3(2), 14-24. DOI : 10.38083/JKNS.23.2.201908.14
- [20] H. J. Park & N. H. Kim. (2020).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4(2), 21-29. DOI : 10.38083/JKNS.24.2.202008.021
- [21] S. N. Park, J. E. Lee & H. R. An. (2017). A Study on Clinical Violence, Emotional Response, Resilience and Career Identify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13(10), 87-101. DOI : 10.14251/crisisonomy.2017.13.10.87
- [22]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23]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57.
- [24] H. Y. Lee (1997). *A study on the social psychological problems of victims and assailants of school violence-for provision of school social work's intervention*.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25] Kroenke, K., Spitzer, R. L., & Williams, J. B.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 [26] S. J. Park, H. R. Choi, J. H. Choi, K. W. Kim & J. P. Hong.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Korea Academy of Anxiety and Mood*, 6(2), 119-124.
- [27] Connor, K. M., & David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28] H. S. Baek, K. U. Lee, E. J. Joo, M. Y. Lee & K. S. Choi.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7(2), 109-115. DOI : 10.4306/pi.2010.7.2.109
- [29] Y. H. Kwon & J. N. Kim. (2002).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2), 216-229.
- [30] C. H. Kim & J. Y. Kim.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59-268. DOI : 10.5977/jkasne.2020.26.3.259
- [31] Pool, L. D., & Sewell, P. (2007). The key to employability: developing a practical model of graduate employability. *Education+ Training*, 49(7), 277-289.
- [32] J. S. Han. (2014). *The Effect of Practice Courses in Tourism Curriculum on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their Career Decision Level : Focusing on a comparison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33] Y. J. Joo, A. K. Chung, S. C. Lee & A. R. Han. (2011). Prediction of Academic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in Computer Education of Engineering College Clas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60(2), 56-62.
- [34] O. H. Cho & K. H. Hwang. (2017). The Impacts of Social Isolation,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Sleep Disorde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329-338.
DOI : 10.14400/JDC.2017.15.11.329

조 정 희(Jung-Hee Cho)

[정회원]



- 2014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학사)
- 2016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21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junghee8302@hanmail.net

조 옥 희(Ok-Hee Cho)

[정회원]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04년 2월 : 가톨릭대학교(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간호, 간호교육

· E-Mail : ohcho@kongju.ac.kr